

대학생의 의복관리행동과 섬유품질표시 인지도

이소영¹⁾ · 심현섭[†]

¹⁾서산 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and Care Label Use of College Students

So Young Lee¹⁾ and Huen Sup Shim[†]

¹⁾Seosan Middle School; Chungnam, Kore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and the recognition of care label of college students, as well as the effects of sex and the learning experience of clothing life area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 survey consisting of 61 questions was conducted on 475 college students(240 males and 235 females) enrolled in a university in Cheongju City, and 450 college students' data were finally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washing behavior(2.54) was the lowest compared to purchasing behavior(3.13) and storage behavior(3.09). Second, college students were well aware of the attachment of fiber care labels, but 64.7% of the college students did not check the care label. About 30% of them did not know why the care labels were attached, and about 57% did not know whether manufacturers were obligated to attach them. The meaning of precautions for handling in a care label was well inferred from the symbols. Third, there was the positive effect of the learning experience of clothing life area during middle or high school on the college students'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and the level of recognition of a care labe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confirming the positive effect of clothing life education in adolescence on adult clothing life behavior.

Key words: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의복관리행동), care label (섬유품질표시), learning experience (학습경험)

1. 서 론

패션산업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접근할 수 있는 의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독립적인 세부목표(SDG4)로 두고 있다(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4). 이는 교육을 통해서 의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 사회의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패션의 일환으로 최근 미니멀리즘적인 삶을 지

향하며 더 이상 새 옷을 사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Arrayales, 2019). 이는 무분별한 패션 소비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의복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꼭 필요한 양 만큼만 옷을 구입하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유하고 있는 옷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재산업의 발달로 기능성 소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의복의 관리방법은 까다롭고 복잡해져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와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의복을 잘 관리하는 것은 품질표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상태를 보존하여 의복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류제품의 품질표시는 상품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사상품에 품질과 취급방법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1999년 2월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품질표시가 자유화되었지만, 2005년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산품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하여 다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되었다. 2017년 1월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되면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에 대하여 제품시험

†Corresponding author; Shim, Huensup
Tel. +82-43-230-3730, Fax. +82-43-231-4087
E-mail: shim@knu.ac.kr

© 2021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FTRJ).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을 실시하고 KC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개정되면서, 최근 품질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Quality Management”, 2017). 이에 따라 의류제품에 섬유의 조성률과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 또는 수입자명과 제조국명이 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피해는 다른 상품에 비하여 그 상담 건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소비자 피해구제 자료에는 의류 및 섬유용품이 전체 물품 총 18,418건 중 5,764건으로 총 31.3%를 차지했고, 용역(서비스) 피해구제 현황은 세탁이 34.2%로 전년도(38.0%) 대비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운수·보관·관리(6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rea Consumer Agency, 2020). 세탁 품목 중에는 의류가 가장 많았고, 주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탁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섬유제품의 품질표시 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품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의류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품질표시 항목은 치수, 섬유혼용률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급주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수준은 낮고, 품질표시를 이해하는 비율도 낮다고 보고되었다(An, 2001; Yuk et al., 2000). 또한 품질표시 내용을 확인하는 비율은 높지만 그에 비해 품질표시를 준수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Choo & Song, 2000; Chung, 2003).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조사된 결과로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가 적용되는 패션 제품을 사용하는 최근 소비자들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은 주로 니트, 아우터, 기능성 의복 등 특정 소재로 구성된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Bang & Yoo, 2016; Han & Chung, 2014; Ko et al., 2007). 대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아우터웨어와 품질표시에 대한 인식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은 겨울 아우터웨어를 구입할 때 보다 세탁할 때 품질표시를 더 확인하고, 품질표시 중에는 세탁방법을 확인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의류학과 전공분야와 연령이 많은 학생이 품질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았다(Han & Chung, 2014). 2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니트 패션제품들의 세탁 및 관리현황을 조사한 연구(Ko et al., 2007)에서도 소비자들은 니트 의류제품의 취급주의 라벨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품질표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세탁방법에 가장 민감하여 취급주의 라벨에 따라 세탁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세탁방법을 실천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제품 구입 시 취급주의 라벨을 확인하는 정도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취급주의에 따른 세탁방법의 실천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섬유제품의 취급주의 표시를 준수하는 정도와 품질표시를 이해하는 정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품질표시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았고(Yuk et al.,

2000), 가정교과를 학습한 집단이 비학습집단보다 의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고 학습요구도가 높았다(Choi, 2008). 이 연구들은 교육을 통해 의생활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생활 교육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유일하게 가정교과에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다(Choi & Nam, 2016). 품질표시를 포함하여 의복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청소년의 자원관리 단원에서 의복재료의 특성, 의복의 세탁과 보관, 의복 재활용, 창의적·친환경적인 의생활의 학습요소로 주로 다루어지며,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에서 의복 마련 계획요소로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거듭 개정되면서 기술·가정 교과서의 시수가 줄어 그 내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감소뿐 아니라 그나마도 학교 현장에서 시수 부족이나 가정교사 부재 등의 이유로 사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다루는 비중이 차이가 큰 형편이다(Choi et al., 2020). 의생활에 관한 교육은 성인기 이후에는 개인의 흥미와 관심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한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복관리행동과 섬유품질표시의 활용실태와 인지도를 조사하고,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의생활 영역을 학습한 경험 정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과 연구절차

충북 청주시 소재 4년제 A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75명(남 240명, 여 235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섬유품질표시 활용실태, 의복관리행동과 섬유품질표시에 대한 인지도 관련하여 총 63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6월 25일부터 2018년 7월 10일까지 수행하였으며, 강의실에서 수업 후에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부실한 25부를 제외하고 45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An, 2001; Choi, 2008; Kim & Kim, 2012; Lee et al., 2004)에서 사용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 문항, 섬유품질표시 확인 여부에 대하여 1문항, 품질표시 확인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 1문항, 의복 아이템별 품질표시 확인 여부에 대해 1문항, 대학생의 의복관리행동에 대해 26문항과 섬유품질표시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28문항으로 총 6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복관리행동은 구매행동 9문항, 취급행동 10문항, 보관행동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대학생의 구매행동 척도는 총 7개 문항 3개 요인(자기표현성, 내구성, 실용성)으로 이루어졌다. 자기표현성은 '신체적인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생각하고 고른다', '체형이나 피부색에 어울리는 옷을 생각하여 고른다', '가지고 있는 옷과의 어울림을 생각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α 는 .71이었다. 내구성은 '바느질과 끝마무리(단처리, 안감)가 잘되었는지 확인한다', '단추 등 부속품이 튼튼하게 달려 있는지를 확인한다'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α 는 .81이었다. 실용성은 '활동하기에 편안한지를 고려한다', '값에 비해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른다'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α 는 .46으로 나타났다.

취급행동 척도는 총 7개 문항 2개의 요인(세탁행동, 성능유지)으로 이루어졌다. 세탁행동은 '세제는 표시된 규정 사용량을 지킨다', '옷감(섬유)에 맞는 세탁 및 손질 방법을 이용한다', '옷감에 따라 알맞은 건조방법(그늘/양지)을 이용한다', '오염종류에 따라 제거방법을 잘 알고 실행한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α 는 .75였다. 성능유지는 의복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세탁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행동으로 '질은 색의 옷은 물이 빠지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오염이 심한 부분은 먼저 부분세탁을 한다', '간단한 옷의 수선은 집에서 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α 는 .57이었다.

보관행동 척도는 하나의 요인으로 '철이 지난 옷은 깨끗해 보이더라도 세탁하여 보관한다', '용도별, 계절별 등으로 알맞게 분류하여 보관한다', '의복을 세탁 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보관한다', '자주 입는 옷은 손이 잘 닿는 곳에 정리장동 해둔다', '내가 원할 때 필요한 옷은 즉시 찾을 수 있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α 는 .77이었다.

섬유품질표시 부착에 대한 인지도는 섬유품질표시가 부착되었는지를 아는지와 부착되는 이유를 아는지, 섬유품질표시가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것을 아는지를 묻는 문항 각 1문항씩과 섬유품질표시 각 항목의 의미를 아는지에 대해 7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0점-'모른다', 1점-'알고 있다'로 조사하였다. 취급상 주의사항은 취급표시 항목 중 많이 사용되는 18가지를 선택하여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선다형으로 제시해 알맞은 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2.3. 자료분석

대상자에 대한 모든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각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t-test로, 학습경험에 따른 차이 분석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검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섬유품질 표시 확인 여부

조사대상자는 남학생은 226명(50.2%), 여학생은 224명(49.8%)이었고 학년은 1학년 50명(11.1%), 2학년 151명(33.6%), 3학년 160명(35.6%), 4학년 19.8%(89명)이었다. 의복을 구매하는 장소는 인터넷 쇼핑이 201명(44.7%), 시장 128명(28.4%), 아울렛 및 할인매장 62명(13.8%), 백화점 55명(12.2%), 홈쇼핑 4명(0.9%)으로 인터넷 쇼핑을 가장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구매 빈도는 3개월 미만이 약 302명(67%)으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미만이 108명(24.1%), 6개월 이상은 39명(8.7%)이었다. 한 달에 지출하는 의복비는 5~10만원 미만이 176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이 123명(27.4%), 3~5만원 미만이 109명(24.3%)이었으며 3만원 미만은 41명(9.1%)이었다. 중·고등학교 가정 교과에서 의생활 영역을 학습한 경험은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한 학생이 54.8%(274명)이었고, 중·고등학교 중 한 번만 학습한 학생이 37.3%(168명),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 의생활 영역을 학습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8%(35명)이었다.

대학생의 섬유품질표시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7%(291명)가 평소에 품질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섬유품질표시의 정보를 살펴보는 항목을 중복체크하여 조사한 결과는 치수 29.3%(274명), 취급상 주의사항 28.1%(263명), 섬유 조성을 19.8%(185명), 제조회사 15.8%(148명) 제조국명 7.0%(65명) 순으로 치수와 취급상 주의사항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의 종류별로는 코트 25.1%(306명), 재킷 19.5%(238명), 점퍼 15.7%(191명), 블라우스 12.5%(153명), 바지 11.6%(142명), 치마/원피스 6.9%(84명) 순으로 의류의 품질표시를 가장 잘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의복관리행동

3.2.1. 대학생의 의복관리행동 실태

대학생들의 의복관리행동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4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관리행동의 전체 평균은 2.93(± 0.56)점으로 구매행동 3.13(± 0.55), 보관행동 3.09(± 0.51), 취급행동 2.54(± 0.61)순으로 나타나 취급행동에 비해 구매행동과 보관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행동은 자기표현성이 3.31(± 0.49), 실용성이 3.24(± 0.51), 내구성이 2.86(± 0.66)순으로 나타나서 대학생들은 의복을 구매할 때 내구성과 실용성보다는 디자인과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을 가장 고려하였다. 취급행동은 의복관리행동 중 가장 낮았고, 특히 세탁행동(2.32 ± 0.59)이 전체 의복관리행동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보여서 대학생의 세탁과 관련한 취급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염된 의복을 부분 세탁하거나 물 빠짐을 고려하는 등 의복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성능유지는 2.76(± 0.63)으로 세탁행동보다는 높은 값을 보였다. 이

Table 1. College students'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Variables		Questions	M(SD)	M(SD)	
Purchase behavior	Self expression	Think about clothes that can compensate for physical flaws.	3.23(.64)	3.13(.55)	
		Choose clothes that match my body shape or skin color.	3.31(.62)		
		I think about what goes well with my clothes.	3.38(.59)		
	Durability	Check if the sewing and finishing are done well.	2.88(.73)		2.86(.66)
		Make sure that the buttons and other accessories are firmly attached.	2.85(.70)		
	Practicality	Choose clothes that can be useful for the price.	3.22(.66)		3.24(.51)
Consider whether it is comfortable to be active.		3.26(.59)			
Care behavior	Washing behavior	Use detergent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amount indicated.	2.25(.72)	2.54(.61)	
		Use washing and maintenance methods that match the fabric(fiber).	2.59(.80)		
		Use appropriate drying methods (shade, sun dry) according to cloth.	2.22(.78)		
	Maintaining performance	Know and implement the method of removal according to the type of contamination.	2.22(.78)		2.54(.61)
		Make simple repair to clothes at home.	2.60(.85)		
		Wash the dirty part first before washing the whole.	2.87(.86)		
Storage behavior	Storage behavior	Make sure if dark clothes are faded before washing.	2.83(.84)	3.09(.51)	
		Wash and store out-of-season clothes even if they look clean.	2.86(.82)		
		Sore clothes after properly classify them by purpose and season.	2.95(.72)		
		Store clothes after wash and dry thoroughly.	3.24(.65)		
		Keep the most frequently worn clothes within reach.	3.33(.64)		
Total			3.04(.68)		
Total			2.93(.56)		

1-Very disagree, 2-Disagree, 3-Agree, 4-Very agree

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아이템보다는 주의가 필요한 특정 의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관행동은 평균 3.09(±.51)로 ‘자주 입는 옷은 손이 잘 닿는 곳에 정리정돈 해둔다’가 3.33(±.64), ‘의복을 세탁 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보관한다’가 3.24(±.65)로 의복관리행동의 하위요인 가운데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3.2.2 성별, 학습경험에 따른 의복관리행동

성별, 학습경험에 따른 의복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제시하였다. 구매행동에서는 여자(3.39)가 남자(3.22)보다 자기표현성을 고려하였고($t = -3.646, p < .00$), 여자(2.96)가 남자(2.77)보다 내구성도 더 고려하는($t = -3.147, p < .01$) 결과를 보였다. 취급행동의 성능유지요인($t = -6.841, p < .00$)과 보관행동($t = -2.639, p < .01$)도 성별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구매행동의 실용성 요인과 취급행동의 세탁행동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관리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경험에 따른 의복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학습한 집단이 학습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의복 구매행동 가운데 자기표현성($F = 5.662, p < .01$), 취급행동의 성능유지($F = 7.507, p < .01$)와 보관행동($F = 6.683, p < .01$)의 평균이 더 높아 의복관리행동을 더 잘하는 결과를 보

Table 2.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Variables		Male (n = 226)	Female (n = 224)	t
Purchase behavior	Self expression	3.22(.52)	3.39(.45)	-3.646**
	Durability	2.77(.69)	2.96(.61)	-3.147**
	Practicality	3.26(.47)	3.22(.54)	.832
Care behavior	Washing behavior	2.29(.58)	2.35(.60)	-1.085
	Maintaining performance	2.57(.60)	2.96(.60)	-6.841**
Storage behavior	Storage behavior	3.02(.53)	3.15(.48)	-2.639**

** $p < .01$

여서 학습경험이 성인기 의생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해석된다.

3.3. 섬유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

3.3.1 섬유품질표시 부착 및 세부항목에 대한 인지도

섬유품질표시에 대한 인지도는 섬유품질표시 부착에 대한 인지도와 섬유품질표시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한 인지도로 구성되며, 섬유품질표시 부착에 대한 인지도는 ‘옷에 섬유품질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섬유품질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섬유품질표시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통

Table 3.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learning experience

Variables	Learning experience			F	
	Learn_2 ¹⁾ (n = 247)	Learn_1 ²⁾ (n = 168)	Learn_0 ³⁾ (n = 35)		
Purchase behavior	Self expression	3.38(.48) ^a	3.21(.52) ^a	3.27(.42) ^a	5.662 ^{**}
	Durability	2.86(.66)	2.87(.68)	2.85(.49)	.027
	Practicality	3.27(.51)	3.22(.49)	3.12(.56)	1.442
Care behavior	Washing behavior	2.33(.58)	2.32(.59)	2.22(.58)	.609
	Maintaining performance	2.84(.61) ^a	2.72(.62) ^a	2.42(.62) ^a	7.507 ^{**}
Storage behavior	Storage behavior	3.14(.52) ^a	3.06(.45) ^a	2.81(.56) ^a	6.683 ^{**}

^{**} p<.01

¹⁾learned twice both at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²⁾learned once either at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³⁾didn't learn at all

하여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섬유제품에 품질 표시가 부착된 것을 아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91.8%(413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부착 여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29.3%(132명)는 섬유품질표시가 부착된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섬유품질표시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높지 않아 43.1%(194명)만이 알고 있었다.

섬유품질표시의 세부적인 내용인 각 항목의 의미를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섬유품질표시의 항목인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제조국명(86.9%), 치수(85.6%), 취급상 주의사항(84.2%), 제조연월(79.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74.2%),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68.0%) 순으로 잘 알고 있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주소 및 전화번호(44.2%)였다. 섬유품질표시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과 제조사 주소 및 전화번호의 의미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 잘 알고 있어서, 섬유품질표시 부착에 관한 내용과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섬유품질표시의 부착이유와 제조사 정보의 의미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품질표시를 부착한 이유가 소

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낮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접촉할 정보를 인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의미하여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3.2. 품질표시 기호에 대한 인지도

섬유품질표시 항목 중 취급상 주의사항에 사용되는 기호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취급상 주의사항은 그림으로 제시된 취급표시를 보고 알맞은 설명을 보기에서 찾는 형식으로 조사하였고, 결과는 오답은 0점, 정답은 1점으로 계산하여 평균값을 비율과 함께 제시하였다. 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정답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취급상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75(±.22)로 품질표시 기호의 의미를 비교적 잘 유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건조방법이 .85(±.23)로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물세탁 방법 .84(±.21), 산소 또는 염소 표백 가부 .81(±.25), 다림질 방법 .79(±.26), 드라이클리닝 방법 .65(±.11)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지도가 낮은 내용은 찌는 방법으로 평균 .61(±.31)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세탁방법 중 세탁기 세탁과 손세탁의 기호에 대해서는 76.0~90.7%로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산소 또는 염소 표백 가부는 ‘염소계와 산소계 표

Table 4. Recognition of care label attachment and contents

n = 450

Questions		Non(%)	Yes(%)
Recognition of care label	Do you know that there is a fiber quality label on the clothes?	37(8.2)	413(91.8)
	Do you know why fiber quality labels are attached?	132(29.3)	318(70.7)
	Do you know that it is mandatory to attach a fiber quality label?	256(56.9)	194(43.1)
Understanding contents of the care label	Fiber content	144(32.0)	306(68.0)
	Manufacturer or importer	116(25.8)	334(74.2)
	Country of manufacture	59(13.1)	390(86.9)
	Date of manufacture	93(20.7)	357(79.3)
	Size	65(14.4)	385(85.6)
	Precautions for handling	71(15.8)	379(84.2)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251(55.8)	199(44.2)

Table 5. Recognition of the care label marks

n = 450

Variables	Care label mark	Correct answer	Incorrect answer	M(SD)	Variables	Care label mark	Correct answer	Incorrect answer	M(SD)
Washing with water		342(76.0)	108(24.0)	.84(.21)	Dry-cleaning		27(6.0)	423(94.0)	.65(.11)
		391(86.9)	59(13.1)				427(94.9)	23(5.1)	
		408(90.7)	41(9.1)				429(95.3)	21(4.7)	
		383(85.1)	67(14.9)				183(40.7)	267(59.3)	
		377(83.8)	73(16.2)				367(81.6)	83(18.4)	
Oxygen or chlorine bleaching		431(95.8)	19(4.2)	.81(.25)	Dry		435(96.7)	15(3.3)	.85(.23)
		301(66.9)	149(33.1)				339(75.3)	111(24.7)	
Ironing		430(95.6)	20(4.4)	.79(.26)		378(84.0)	72(16.0)	.85(.23)	
		289(64.2)	161(35.8)			380(84.6)	68(15.1)		

백 불가능'에 대해서는 33%가 '산소계 표백 불가능'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기호가 비교적 의미의 전달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응답하였거나 산소계/염소계 표백제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림질 방법은 '천을 대고 다림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8%가 잘 모르고 있어서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드라이클리닝은 '퍼클로로에틸렌 용제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용제의 의미는 모르지만 드라이를 해야 하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다. 짜는 방법으로 '손으로 짜는 경우 약하게 짜고 원심 탈수기의 경우는 단시간에 짜는 방법'에 대해 59.3%가 오답으로 응답하였고, '손으로 짜지 말라'는 기호는 비교적 기호로 의미 전달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약 20%의 학생들이 오답으로 응답하였다. 건조방법은 '누어서 그늘에 건조' 문항에 약 25%가 오답으로 응답하여 기호로부터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체로 기호에서 표현되지 않는 지식을 포함하는 경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호를 제외하고는 취급상 주의사항의 기호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여전히 취급상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식의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3.3. 성별과 학습경험에 따른 섬유품질표시에 대한 인지도
 성별, 학습경험에 따른 섬유품질표시의 인지도 차이를 살펴보면 각각 Table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섬유품질표시 부착에 대한 인지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섬유품질표시 부착에 대해 더 잘 이해하였고($t = -2.489, p < .05$) 섬유품질표시 각 항목의 의미와, 취급상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습경험에 따라서는 섬유품질표시 부착에 대한 인지도와 섬유품질표시 각 항목의 의미, 품질표시 기호에 대한 인지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7). 섬유품질 표시 부착에 대한 인지도는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학습한 그룹(.71±.28)이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하지 않은 그룹(.55±.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섬유품질표시 각 항목에 대한 의미를 아는지에 대해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한 그룹(.77±.25)과 중·고등학교 중 한 번만 학습한 그룹(.74±.26)은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경험이 없는 그룹(.57±.3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취급상 주의사항의 품질표시 기호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Table 6. Recognition of care label according to gender

	Male (n = 226)	Female (n = 224)	t
Recognition of fiber care label attachment ¹⁾	.65(.31)	.72(.27)	-2.489*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each category of the care label ²⁾	.73(.28)	.75(.25)	-.849
Precautions for handling ³⁾	.75(.12)	.76(.10)	-.663

* p<.05

¹⁾ The average data from three questions on the recognition of care label attachment.

²⁾ The average data from seven questions on the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the care label.

³⁾ The average data from the recognition of the 18 care label marks.

Table 7. Recognition of care label according to learning experience

	Learning experience			F
	Learn_2 ^{a)} (n = 247)	Learn_1 ^{b)} (n = 168)	Learn_0 ^{c)} (n = 35)	
Recognition of fiber quality label attachment ¹⁾	.71(.28) ^{a)}	.66(.29) ^{ab)}	.55(.36) ^{b)}	5.230**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each category of the quality label ²⁾	.77(.25) ^{a)}	.74(.26) ^{a)}	.5 (.37) ^{b)}	8.023**
Precautions for handling ³⁾	.76(.11) ^{a)}	.77(.10) ^{a)}	.69(.15) ^{b)}	8.182**

** p<.05

¹⁾ The average of data from three questions on the recognition of care label attachment

²⁾ The average of data from seven questions on the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the care label

³⁾ The average of data from the recognition of the 18 care label marks

a) learned twice both at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b) learned once either at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c) didn't learn at all

학습경험에 따라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한 그룹(.76±.11)과 중·고등학교 중 한 번만 학습한 그룹(.77±.10)은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한 경험이 없는 그룹(.69±.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연구 결과 중·고등학교에서 의생활 영역의 학습경험이 섬유품질표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는 미래의 소비 주체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복관리행동과 섬유품질표시의 활용실태와 인지도를 알아보고, 성별,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에서 의생활 영역을 학습한 경험 정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마련행동과 관련한 일반적 특성과 학습경험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인터넷 쇼핑으로 의복을 마련하는 경우가 가

장 많고(45%) 약 67%가 한 달에 의복 구입비로 5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중·고등학교 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을 학습한 경험은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한 그룹이 54.8%, 중·고등학교 중 한 번만 학습한 그룹이 37.3%로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한 번 이상의 의생활 영역을 학습하였지만, 학습경험이 없는 그룹도 7.8%나 되었다. 섬유품질표시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64.7%로 많은 학생들이 섬유품질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의복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2.93(±.56)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구매행동 3.13(±.55), 보관행동 3.09(±.51), 취급행동 2.54(±.61) 중 취급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대학생들은 의복을 구매할 때 내구성이나 실용성보다는 디자인과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을 더 고려하였고 취급할 때에는 성능유지(2.76±.63)를 세탁행동(2.32±.59)보다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구매행동의 자기표현성과 내구성, 취급행동의 성능유지, 보관행동을 포함하여 대부분 여자가 의복관리행동을 더 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학습경험은 구매행동의 자기표현성, 취급행동의 성능유지와 보관행동에서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한 그룹과 중·고등학교 중 한 번만 학습한 그룹이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한 경험이 없는 그룹에 비해 높아서 학습경험이 의복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들은 섬유품질표시가 부착된 것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부착되는 이유는 약 30%,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지는 약 57%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섬유품질표시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제조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가장 적게 알고 있어서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취급상 주의사항은 드라이클리닝 방법과 찌는 방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70% 이상 이해하고 있어 기호의 의미를 잘 유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섬유품질표시 부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학습경험으로는 섬유품질표시 부착에 관한 내용과 품질표시 기호에 대한 인지도는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한 그룹과 중·고등학교 중 한 번만 학습한 그룹이 섬유품질표시에 대해서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의복관리행동 중 취급행동의 세탁행동과 성능유지요인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섬유품질표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반해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는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의생활 학습경험이 의복관리 행동과 섬유품질표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감소, 학교 현장에서 시수 부족과 가정과 교사의 부재 등의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시기의 가정과 의생활 교육이 성인기 의생활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다. 향후 가정교과 의생활 교육내용을 지속가능발전목

표를 반영하도록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n, S. T. (2001). *Consumers' care label recognition for clothes handl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Arrayales, T. (2019, April 01). I haven't bought clothes for a year and I've changed. *Huffingtonpost*. Retrieved November 4, 2019, from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clothes-not-buy_kr_5ca165cbe4b00ba6327f0180
- Bang, G. S., & Yoo, S. J. (2016). A study on effectiveness of Hang-Tag type and preferred method of functional information for outdoor jackets. *Korean Journal of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9(4), 83-94. doi:10.14695/KJSOS.2016.19.4.83
- Choi, S. Y. (2008). *Effect of awareness of the clothing area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on learning needs and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Choi, Y. J., Park, M. J., & Shim, H. S. (2020) Development of a theme-selection activity in 'Clothing Life' in relation to SDGs for the free semester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3), 27-48. doi:10.19031/jkheea. 2020.09.32.3.27
- Choi, Y. R., & Nam, Y. S. (2016). Analysis of the clothing unit of high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in the revised 2009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ESD. *Proceedings of the 2016 Summer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 Education Conference* (pp. 51-54). Seoul: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 Education Association. doi:10.19031/jkheea.2020.03.32.1.89
- Choo, T. G., & Song, J. A. (2000). The actual condition of care label attached to clothing and consumers' perceptio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4), 331-338.
- Chung, K. H. (2003). *A study on the labels of clothing products - With a focu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ir attachment and the attitudes of female consum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Han, H. J., & Chung, H. W. (2014). Consumers' attitude toward care label instructions and care of winter outerwea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8(6), 942-952. doi:10.5850/JKSC.2014.38.6.942
- Kim, Y. S., & Kim, B. R. (2012). Intake of snacks, and perceptions and use of food and nutrition labels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Chuncheon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41(9), 1265-1273. doi:10.3746/jkfn.2012.41.9.1265
- Ko, S. Y., Kim, C. H., Park J. H., Lee H. J., Lee J. H., & Lee K. H. (2007). Laundering and care of knitwear produc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9/10), 1364-1372. doi: 10.5850/JKSC.2007.31.9_10.1364
- Korea Consumer Agency. (2020). Annual report and casebook for consumer damage relief. Retrieved September 23, 2021, from <https://www.kca.go.kr/odr/pg/pi/osPgAnnualExamW.do>
- Lee, H. S., Lee J. G., Kim S. G., Kim, M. J., & Lee H. J. (2004). A study on the laundry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6(3), 147-167.
-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 safety management act'. (2011, July 25).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September 23, 2021, from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subMenuId=23&tabMenuId=123&eventGubun=060103&query=#Eundefined>
- Yuk, E. Y., Bae, H. S., & Kang, I. S. (2000). A study on the consumer and seller's perception to quality label of clothing products. *Journal of Human Ecology*, 4, 7-19.

(Received October 22, 2021; 1st Revised November 1, 2021; 2nd Revised November 9, 2021; Accepted November 17, 2021)